코로나19 발생 관련 수출동향 주간보고(7월 5주차)

1. 해외 동향

국가		주요 동향
미국	바이어·수입	○ (HK사) 운송비 대폭 상승으로 버섯류 수입 물량 조절이 힘들어지고 있음. ○ (G사) 운송비가 하락하지 않고 있어 한국 농식품 수입에 부담이 큼. 하반기 신고배 수입 물량 가격 인상 및 수입량 조정 검토 중 ○ (H사)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라 음료 등 부피가 큰 제품들의 수입 물량을 조절 중임 ○ (E사) 운송비 대폭 상승으로 하반기 신고배 수입에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와 aT의 선복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J사) 해상물류비 상승 및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음료 등 부피가 큰 제품들의 수입 물량은 최소 거래선 유지 정도로 조절하고 물류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발굴 중임 ○ (전체) 운송비 인상에도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 내륙 운송비 지원이 필요하고 판촉 등의 수입 기간에 대한 임시 연장 필요
	유통·소비	○ 미국 온라인 식료품 판매는 6월 총 68억달러로 5월(70억달러) 대비 3% 감소.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2021년 1분기 최고 수준에 이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7.22/ Supermarket News) ○ Uber는 댈러스, 오스틴 및 휴스턴 시장에 있는 25개의 코스트코 창고 클럽에서 Uber 및 Uber Eats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식료품 배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 안에 다른 7개의 Costco 클럽으로 확대해나갈 계획(7.21/ Supermarket News) ○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크게 늘며 식품시장, 특히 온라인 식품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겪은 가운데 오히려 껌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약 36억달러 규모였던 미국 껌 시장은 2020년 28억달러로 급감했는데 이는 외출 제한으로 껌의 가장 큰 구매 요소인 충동성과 이동성이 제약을 받은 것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껌 수요와 구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 특히, 구취 제거용으로 소비되던 츄잉껌의 하락세는 33억 4,140만달러에서 25억 1,960만달러로 24.5%가 감소하며 2억5,730만달러에서 2억2,920만달러로 10.9% 감소한 풍선껌보다 2배 이상의 큰 하락폭을 보임(7.22/Euromonitor)
	행사	○ 2021 온라인 ECRM 밴더박람회 참가(7.26~30, 한국식품유통업체 9개사)
	기타	○ (7.25 기준, CDC) 미국 확진자 34,380,019명, 사망자 608,403명 - 뉴욕주 누적 확진자 수 2,131,612명, 사망자 수 53,470명 - 캘리포니아주 누적 확진자 수 3,941,816명 / 사망자 63,741명

		○ (07.23 기준) 캐나다 확진자 1,425,097명, 사망자 26,526명 ○ 캐나다-미국 국경 반쪽만 오픈(7.23, ctvnews) - 미국인 관광객은 8월9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지만, 캐나다 관광객은 육로를 통해 미국 입국 불가
베트남	유통·소비	○ 코로나 4차 확산이 심한 호치민시의 경우 대규모 재래시장은 폐쇄되었으며, 베트남 내 지역간 이동 시 운송업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요구에 따른 운송 지연 및 재택근무로 인한 인력 부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한 사재기 등으로 대형유통마켓 재고 부족 ○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한 식당 임시 중단, 배달 중지 등으로 가정 내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냉동식품, 라면, 통조림 등 즉석 조리식품 등 소비 증가
	행사	○ 하노이시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7.24. 6시부터 공공장소 2명 초과 집합 금지 및 외출 자제로 대형 유통매장 내 시식 등 행사 전면 중단 * 호치민은 7.9.부터 대형매장 내 시식 등 행사 전면 중단 시행 중
	기타	○ 현지 각 항구로부터 하노이/호치민 운송 및 지역 간 이동 시 코로나 음성판정서(PCR) 필수 지참 및 진단검사 실시 ○ 확진자수(기준일 7.26): 일일 5,174명(누적 106,347) / 사망 154명(누적 524) - (하노이) 7.19부터 비필수업종 중단, 5인 초과모임 금지 등 실시하였으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7.24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15일간 하노이 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최대한 자택에 머물 것 * 대화시 최소 2미터 간격 엄격히 유지, 공공장소 2명 초과 금지 * 기업의 경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 실시 * 육로, 수로 승객운송 활동 중단, 식당 전면 영업 중지, 배달 중단 등 - (호치민) 5.31부터 지침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으며, 7.9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8.1까지 연장된 상황이며, 현재 조치보다 강화된 12호 긴급 지시령 적용 중(7.22부터 15일간) * 봉쇄지역은 특정 경우에만 외출 가능 (1) 긴급 의료 상황, (2)봉쇄지역 내 마트/시장 방문(주 2회) * 은행, 증권사는 활동 유지. 단, 지점 및 영업점은 교대로 활동, 근로자 교대근무 * 공무원 격일 근무 혹은 오전/오후 나눠 근무, 꼭 필요시에만 외출 * 검역 바리케이드(호치민시 출입구 12개 바리케이드, 각 군/현간 바리케이드)는 아래에 사항들만 통과 : 공무목적 차량, QR CODE가 발급된 물품 차량, 공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기관 소속 개인 차량 및 예방/방역 차량, 계획대로 호치민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민들 지원 차량 * 호치민 시내 야간(18시~6시) 외출 금지(7.26부터) - (백신접종율/7.26일 기준) 총인구 대비 1차 4.5% 진행(4,323,571명, 2차 0.44%(423,071명) * 인구 97.6백만명

태국	유통·소비	○ 태국 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공·냉동식품 수요 증가 - 뉴노멀 상황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냉동 및 즉석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식당과 청과물 시장 등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등을 통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백화점 내 식당 온라인 판매를 위한 조치 완화 검토중 - 현재 백화점·쇼핑몰 내 음식점 및 푸드코트 영업 금지 조치로 인해 식당운영자, 배달원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규제 조치 완화 검토 ○ 푸드판다, 반정부시위 참가한 배달원 해고로 인해 온라인상 불매운동 확산 - 푸드판다 배달원 한 명이 반정부 시위 참가해서 국왕사진을 불태우려고 했던 혐의가 포착되며 푸드판다에서 해당 배달원의 행동을 테러로 규정하며 해당 직원 해고 조치를 트위터 발표한 이후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banfoodpanda)를 통한 푸드판다 보이콧 움직임 확산 - 백신 접종 지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정부 시위를 통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음
	행사	○ 방콕 등 수도권 내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중으로 행사 추진 불가(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기타	○ 확진자수(7.28 기준) 일 확진자 최대 16,533명, 총 누적 확진자 54만명 돌파 - 7.20부터 방콕 및 수도권 등 13개 주에 해당되는 최대엄격통제구역(Dark Red Zone)에 대해 아래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 야간통행금지(21:00-04:00) 및 불필요한 이동 자제, 5인이상 모임 금지, 지역간 이동 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 제한, 정부·민간 부문 모두 교육·세미나·회의는 화상으로 실시, 호텔 내 회의·세미나·연회 금지 등 * 7.21(수)부터 최소 14일간 동 13개 주 출·향발 국내 항공선 운영 중단 ○ 태국 정부,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20.3.26～'21.9.30) ○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현황 - 백신 누적 접종자 수(7.26 기준) : 12.4백만명(2차 접종 완료 3.6백만명) * 태국 총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은 18.78%, 접종완료율 5.54%
인도네시아	유통·소비	○ 인도네시아 대표 편의점 알파마트(Alfamart)의 전월 대비 매출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강화로 40% 하락 * 인니 전역에 총 15,698개 편의점 운영
	바이어·수입	○ 록다운으로 인한 쇼핑몰 폐쇄 등 영업 금지로 일부 품목은 소비 감소를 우려, 수입을 늦춰 당분간 수출감소 전망 ○ 7월 둘째주부터 2주 동안 발생된 세관 전산시스템 문제는 해결되어 현재 정상운영 중이나 기존 적체된 물량으로 인한 수입컨테이너 통관 지연은 평균 1주일 발생되어 수입업체의 7월 컨테이너 보관비 600% 증가
	기타	○ 확진자수(7.26 기준) : 3,194,733(신규 28,228), 사망 84,766 - 인도네시아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사망자수는 11일째 천명 이상 발생 중임

		○ 일일 신규확진자 수 10,000명 이하를 목표로 준봉쇄령 수준의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3&4단계 연장적용(7.20～8.2), 자카르타는 조치 4단계 적용 - 4단계 : 유통 등 필수업종 외 사업장 100% 재택근무, 쇼핑센터·쇼핑몰 폐쇄, 식당음식 배달·포장만 허용, 모든 교육 및 학습활동 온라인 수업, 공공장소·공원·관광지 일시 폐쇄, 예술문화·스포츠·사회활동 장소 일시 폐쇄.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점은 방문객 50% 허용 등 ○ 인니 입국 외국인 백신접종 증명서(2차까지) 제시 및 호텔격리 8일 의무 ○ 백신 접종률(기준일 7.26) : 전체 인구 276백만명 중 6.6% 완료
싱가포르	유통·소비	○ 재래시장을 통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주문 증가 - 레드마트, 페어프라이스 등 온라인 주문 20～30% 증가
	기타	○ 확진자수(7.26 기준) : 64,314(신규 117), 사망 37 - 백신접종률 : 인구(5.7백만명)의 53.8%인 약 3.1백만명 - 싱가포르 방역 제한조치 2단계(경보강화)로 다시 격상 (7.22～8.18) * 최대 모임 인원 2명으로 축소 * 식당 및 식음료 매장 내 식사 및 음료 섭취 금지 (배달만 가능) * 중단되는 영업활동 : 사우나, 마시지 등 마스크를 벗는 서비스 영업이나 스포츠 활동 * 공연, 각종 행사, 종교활동 등 참여 인원 축소 * 관광지, 박물관, 쇼핑몰 수용 인원 축소 * 재택근무 유지, 직장 내 사교·친목 모임 금지
말련	기타	○ 확진자수(7.26 기준) : 1,027,954(신규 14,516), 사망 8,201 - 백신접종현황 : 접종횟수 17,307,553회, 접종완료 5,519,845명(인구대비 16.8%) * 보건부, 7.26 기준 - 9월부터 학교 대면수업 단계적 재개(7.17) - 8월중으로 쿠알라룸푸르 및 수도권 거주민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보건부, 7.15)
호주·뉴질랜드	유통·소비	○ (호주) 시드니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들의 슈퍼마켓 방문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등 대형유통업체 감염 위험 장소로 주목. 현지 대형유통업체 울워스, 콜스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방문을 피하고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라고 권고
	기타	○ 확진자수(7.26 기준) : (호주) : 33,081(신규 164), 사망 918 / (뉴질랜드) 2,863(신규 0), 사망 26 - (호주) 코로나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시드니 7월 30일까지 록다운, 야외 모임 인원 2명 제한, 운동 등 야외 활동 거주지에서 10km 이내로 제한, 쇼핑은 가구당 1인으로 제한, 장례인원 10명으로 제한, 4개 필수항목 외출 가능(식음료 구매, 병원/약국 방문, 간병, 운동), 록다운 9월까지 지속될 전망 - (뉴질랜드) 7월 23일부터 8주간 호주 전역과 무격리 자유여행(트래블 버블) 중단, 시드니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 자가격리 실시

2. 통관·검역 이슈

국가	이슈내용
미국	○ 뉴저지 엘리자베스항의 경우 배가 항구에 도착 후 Arrival Notice(포트에 배를 접안시키는 것, 부두에 배를 대는 것)를 이전에는 2~3일 전에 줬었으나, 현재는 물동량이 많아 날짜가 임박해서야 발급(지속) ○ 뉴저지 엘리자베스항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평상시보다 20여일 늦게 항구에 도착 중 ○ 항만 인력이 부족해 항구를 빠져 나가야 하는 물량이 제때 못빠져 나가고 있으며, 소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동량 적체가 심해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BCG(보스턴컨설팅그룹) 코참 세미나(7.12)에 따르면 해상물류 상황은 2022년 하반기 선박투입이 늘어난 이후부터 컨테이너 비용 하락 및 물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6월기준 LA항에서 하역 처리된 컨테이너의 수는 모두 87만6,430개로 전년동기 대비 26.8%나 급증, 이는 거의 100만TEU에 미치는 물동량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물동량 확대로 물류업계의 트럭 드라이버 구인난도 비상, 1년전 시간당 20달러 안팎이었던 임금이 30달러까지 올랐음에도 트럭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규인력이 없고, 최근 코로나로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로 인력을 건설 현장에 뺏기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
베트남	○ 호치민 깟라이 항구의 경우 근로자 코로나 감염에 따른 통관업무 지연 * CFS(컨테이너 조작장) 창고 내 컨테이너 작업 인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1대 Devanning(컨테이너 내장화물을 꺼내는 작업) 5-7일 이상 소요 * 깟라이 항구 내 정체현상 극심에 따른 하역 후 소형 선박으로 수송하는 스케줄 역시 딜레이 * 일부 바이어 깟라이 공항 적제현상 피하기 위해 타 포트로 변경하는 방안 고려중(Hiiep Phuoc, ICD Nhon Trach, ICD Long Binh 등) ⇒ (당부사항)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Cat Lai 포트 내 FCL/LCL 선적 및 하역 작업이 모두 영향을 받아 불가피한 DEM, DET, STR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임. 또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지침 아래, 현재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선적이 되지 않은 화물은 화주와 조율하여 PORT 및 공장들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선적 일정을 미룰 것을 권장하며, 이미 선적이 된 경우 FREETIME을 최대한 연장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추가 SURCHARGE를 대비하는 것이 좋음. 화주 측에도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겠음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7.28)

<table>
<tr><th colspan="2">지역해관</th><th>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th><th>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바이어 대상 의견조사)</th><th>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th></tr>
<tr><td colspan="2">베이징
(北京)</td><td>불가</td><td>-</td><td>-</td></tr>
<tr><td colspan="2">톈진
(天津)</td><td>가능</td><td>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
* 품목별, 국가별 편차 큼</td><td>3~5일 (핵산검사X),
7일~10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td></tr>
<tr><td rowspan="2">상하이
(上海)</td><td>공항</td><td rowspan="2">가능</td><td rowspan="2">실시
(샘플링 비율 : 약 50~70%)
* <u>파프리카 등 냉장식품 약 50%</u>, 냉동식품 70%</td><td>1일 (핵산검사X),
7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td></tr>
<tr><td>항구</td><td>3~5일 (핵산검사X),
15일 (핵산검사O)
* 기존 3~5일</td></tr>
<tr><td colspan="2">광저우
(广州)</td><td>가능</td><td>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td><td>2~5일 (핵산검사X),
7~15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td></tr>
<tr><td colspan="2">칭다오
(青岛)</td><td>가능</td><td rowspan="3">일부 실시
- 냉동수산/냉동육류 : 100%
* <u>파프리카 등 채소와 과일</u>, 상온/냉장 일반가공식품, 냉장 수산물은 <u>핵산검사 미진행</u></td><td rowspan="3">1~2일(핵산검사X),
3~5일(핵산검사O)
* <u>파프리카와 같은 냉장 채소류</u>와 아이스크림 등 냉동 일반가공식품은 <u>해관 통관시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u> 시장감독관리국 요구사항으로 <u>전용창고 입고 후 소독과 핵산검사를 마쳐야 유통 가능</u></td></tr>
<tr><td colspan="2">웨이하이
(威海)</td><td>가능</td></tr>
<tr><td colspan="2">스다오
(石岛)</td><td>가능</td></tr>
</table>

※ 통관시 검사 :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샘플 채취)
※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